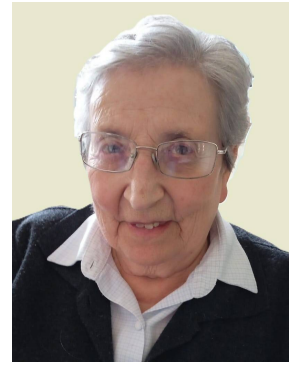




부활에 대한 믿음은
우리에게 죽음을 넘어
형제적 일치에 이르게 한다.
(생활규칙 24)



오늘, 2026 년 7 월 15 일 오전 11 시 40 분,

알바로 라지알레 모원 공동체 에서

필로메나 시니어 M. 로렌자 COI 수녀님이

88 세(수도생활 64 년)로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셨습니다.

전례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드리는 찬양의 찬미가를 선포하는 바로 오늘, 선한 목자께서는 로렌자 수녀를 당신 곁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저는 당신을 찬양합니다. 지혜로운 자들과 학식 있는 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을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드러내 주셨기 때문입니다”(마태 11,25). 이제 주님을 환호하게 하는 단순하고 가난한 이들의 무리 가운데, 평생 동안 순수한 마음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다른 이들에게 전했던 로렌자 수녀가 함께합니다.

필로메나는 1938 년 2 월 11 일 사르데냐 누오로 주 오라니에서 태어났으며, 같은 해 2 월 17 일 고향인 산탄드레아 아포스톨로 본당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수녀님은 1958 년 6 월 23 일 알바노 라지알레 모원에서 수도회에 입회했으며, 몇 달 전에 입회한 여동생 로살리아 수녀에 이어 입회했습니다. 수녀님은 1960 년 9 월 2 일 알바노 라지알레 - 모원에서 수련 생활을 시작했고, 1961 년 9 월 3 일 첫 서원을 하여 마리아 로렌자 수녀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1966 년 9 월 3 일 수녀님은 다시 알바노 라지알레 모원에서 종신 서원을 했습니다.

M. 로렌자 수녀는 다소 수줍은 면이 있지만 사교적이고, 실용적인 지성을 지녔으며, 깊고 열정적인 신앙심을 가진 수녀로 묘사됩니다. 그녀는 기도와 공동체 생활, 일, 그리고 가난을 사랑하며, 관대하고 헌신과 사랑, 기쁨으로 사도직에 전념합니다.

첫 서원을 마친 후, 수녀님은 쿠네오 현의 살리체토로 파견되어 유치원 교사로 근무했으며, 1966년에는 세스트리 레반테(제노바)에서, 그 후(1969년)에는 세딜로(오르스티고)에서 같은 열정을 가지고 사도직을 이어갔습니다. 1974년에는 학업을 위해 알바노 라지알레의 모원으로 돌아왔습니다.

M. 로렌자 수녀님은 사목 활동을 주로 유치원 교사 (특히 사랑하는)로서 그리고 가정 및 청소년 사목 분야에서 수행했습니다. 일부 공동체에서는 원장 직무도 수행했습니다: 1976년 산테지디오(PG); 1985년에는 사르데냐로 돌아와 1998년까지 오리스타노 공동체에서, 그 후 2018년까지 사마시에서 활동했습니다.

2018년 말 무렵, 건강이 악화됨에 따라 로렌자 수녀님은 필요한 치료를 받기 위해 알바노 라지알레의 모원으로 들어왔습니다.

로렌자 수녀님이 병상에 계시는 동안 형제애와 다정함으로 수녀님을 돌봐 주신 수녀님들과 외부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수녀님들은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저는 세딜로에서 사도직을 수행하던 중 로렌자 수녀님을 만났는데, 수녀님은 적게 말하고 많이 실행하는 강인한분이었으며, 매우 내성적이면서도 일에는 단호한 분이었습니다. 병환 중에도 수녀님은 고통을 받아들이며, 불평하지 않고 침묵 속에서 주님께 바치는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로렌자 수녀님, 귀중한 삶의 교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로렌자 수녀님, 수녀님의 삶과 '파스토렐라'로서 성소의 선물에 감사드리며, 수녀님을 아버지의 자비에 맡기고, 세상에 평화가 깃들도록 전구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루치아 뼈아이 수녀

부총장

2026년 7월 15일, 로마

교회의 박사, 주교 성보나벤뚜라 축일